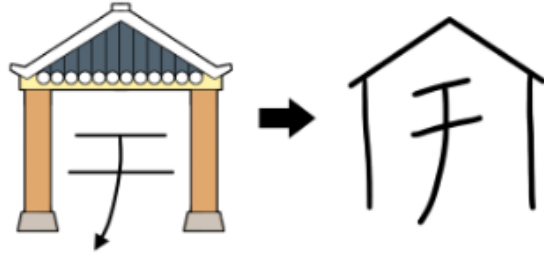


3(2)  
-  
311

회의문자①



宇

집 우:

宇자는 '집'이나 '지붕', '크다'라는 뜻을 가진 글자이다. 宇자는 宀(집 면)자와 于(어조사 우)자가 결합한 모습이다. 于자는 '~에서'나 '~부터'와 같은 어조사로 쓰이지만, 여기에서는 발음과 모양자 역할을 하고 있다. 宇자는 본래 지붕이나 처마를 뜻하기 위해 만든 글자였다. 전통가옥에 있는 처마는 높게 솟아오른 곡선이 자연스럽게 아래로 감아져 내려오는 모습을 하고 있다. 于자는 지붕의 처마가 굽은 모습을 표현하기 위해 쓰인 것이다. 그래서 宇자는 지붕이나 처마를 뜻했었지만, 지금은 지붕의 넓은 면적에 비유해 '크다'나 '넓히다'라는 뜻으로 쓰이고 있다.



갑골문



금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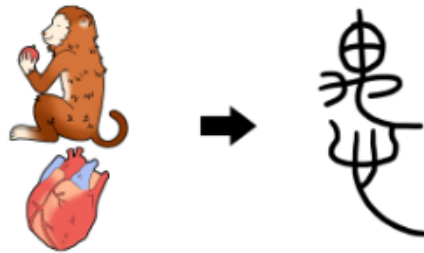
소전



해서

3(2)  
-  
312

회의문자①



愚

어리석을  
우

愚자는 '어리석다'나 '고지식하다'라는 뜻을 가진 글자이다. 愚자는 禺(원숭이 웅)자와 心(심)자가 결합한 모습이다. 禺자의 사전적 의미는 '꼬리가 긴 원숭이'이다. 원숭이는 사람과 닮았지만, 사람처럼 지능이 뛰어나지는 못하다. 그래서 愚자는 원숭이처럼 머리가 나쁘고 어리석은 행동을 하는 사람이라는 의미에서 '어리석다'를 뜻하게 되었다.



금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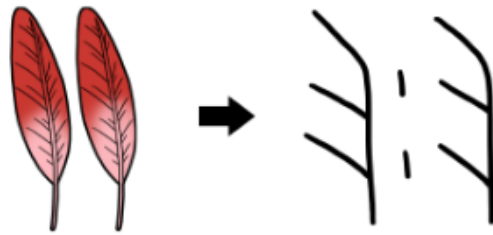
소전



해서

3(2)  
-  
313

상형문자①



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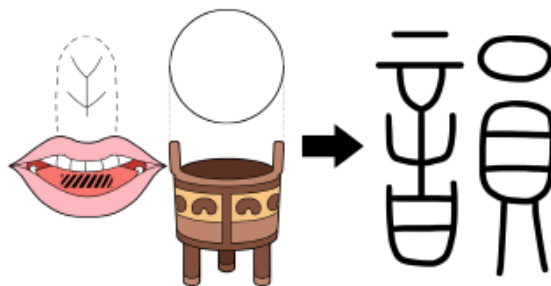
깃 우:

羽자는 '깃털'이나 '날개', '조류'라는 뜻을 가진 글자이다. 갑골문에 나온 羽자를 보면 두 개의 깃털이 𠂔 그려져 있었다. 이것은 새의 깃축과 깃판을 함께 그린 것이다. 羽자는 이렇게 새의 깃털을 그려 '날개'나 '새', '날다'라는 뜻을 표현했다. 羽자는 깃털은 새가 하늘을 날 수 있도록 돕는다는 의미에서 '돕다'라는 뜻도 갖고 있다. 그래서 羽자가 다른 글자와 결합할 때는 '깃털'이나 '날다', '돕다'와 같은 뜻을 전달하게 된다.

갑골문	금문	소전	해서

3(2)  
-  
314

형성문자①



韻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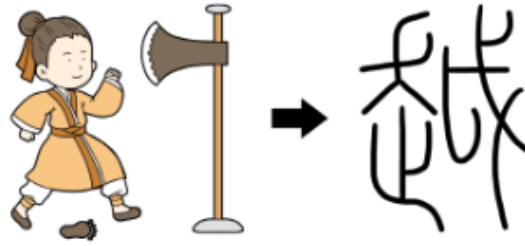
운 운:

韻자는 '운치'나 '소리의 울림'이라는 뜻을 가진 글자이다. 韻자는 音(소리 음)자와 員(수호 원)자가 결합한 모습이다. 員자는 술 위에 둥근 원을 그린 것이지만 여기에서는 '원→운'으로의 발음역할만을 하고 있다. 韻자는 본래 소리의 흐름이 균일하다는 것을 뜻하기 위해 만든 글자였다. 그래서 소전 이전에는 音자와 勻(고를 균)자가 결합한 韻(운 운)자가 쓰였었다. 그러나 소전에서는 韻자가 '소리의 울림'을 뜻하게 되었다. 韻자는 때로는 '정취'나 '운치'를 뜻하기도 한다. 음악 소리가 잔잔히 울려 퍼지듯이 멋진 경치도 잔잔한 여운과 감동을 남기기 때문이다.

소전	해서

3(2)  
-  
315

형성문자①



越

넘을 월

越자는 '넘다'나 '초과하다'라는 뜻을 가진 글자이다. 越자는 走(달릴 주)자와 戔(도끼 월)자가 결합한 모습이다. 戔자는 도끼 모양의 창을 그린 것이지만 여기에서는 발음역할만을 하고 있다. 越자는 무언가를 뛰어넘는다는 것을 뜻하기 위해 만든 글자이다. 그래서 어찌 보면 走자가 높은 창(戔)을 뛰어넘는 듯한 모습으로도 해석될 수 있다. 戔자가 발음역할을 한다고는 하지만 어느 정도는 의미도 함께 전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越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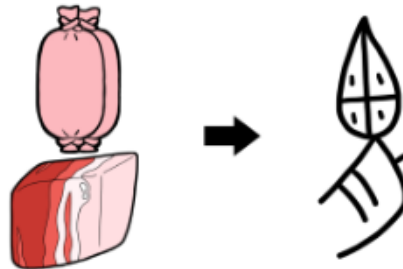
소전

越

해서

3(2)  
-  
316

상형문자①



胃

밥통 위

胃자는 '밥통'이나 '위'라는 뜻을 가진 글자이다. 胃자는 田(밭 전)자와 月(육달 월)자가 결합한 모습이다. 그러나 胃자에 쓰인 田자는 단지 사람의 '위'를 표현한 것일 뿐 '밭'과는 아무 관계가 없다. 胃자의 금문을 보면 둥근 원안에 점이 ㇿ 찍혀있었다. 이것은 위에 음식물이 들어있음을 표현한 것이다. 여기에 신체기관을 뜻하는 月자가 결합한 胃자는 사람의 '위'를 뜻하고 있다.

胃

금문

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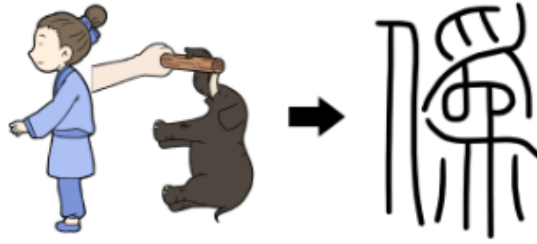
소전

胃

해서

3(2)  
-  
317

회의문자①



偽

거짓 위

偽자는 '거짓'이나 '속이다'라는 뜻을 가진 글자이다. 偽자는 人(사람 인)자와 爲(할 위)자가 결합한 모습이다. 爲자는 꼬끼리를 조련하는 모습을 그린 것으로 '~하도록 하다'라는 뜻이 있다. 고대에는 꼬끼리를 길들여 짐을 나르거나 재주를 부리도록 했다. 야생에 살던 꼬끼리를 인간이 길들여 기른다는 것은 분명 자연스러운 일이 아니었을 것이다. 그래서 偽자는 꼬끼리를 길들이는 모습의 爲자에 人자를 결합해 인간이 인위적으로 꼬끼리를 길들이는 것은 자연스럽지 못하다는 의미에서 '거짓'을 뜻하게 되었다.

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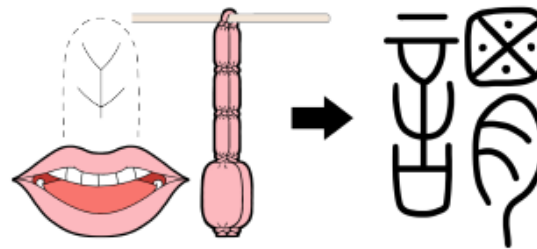
소전

偽

해서

3(2)  
-  
318

형성문자①



謂

이를 위

謂자는 '이르다'나 '일컫다'라는 뜻을 가진 글자이다. 謂자는 言(말씀 언)자와 胃(밥통 위)자가 결합한 모습이다. 胃자는 '위'나 '밥통'을 그린 것이지만, 여기에서는 발음역할만을 하고 있다. 謂자는 '이르다'나 '일컫다'라는 뜻을 위해 만든 글자이지만 이 외에도 '논평하다'나 '알리다', '생각하다', '힘쓰다'와 같은 다양한 뜻을 표현하는데도 쓰이고 있다.

謂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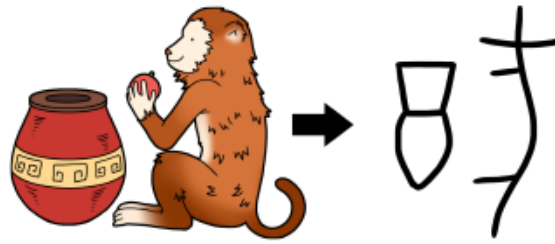
소전

謂

해서

3(2)  
-  
319

형성문자①



猶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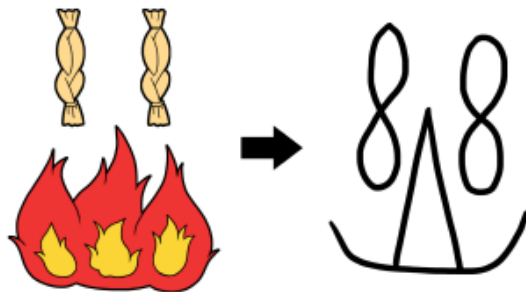
오히려  
유

猶자는 '오히려'나 '망설이다'라는 뜻을 가진 글자이다. 猶자는 犬(개 견)자와 犒(목은 술 추)자가 결합한 모습이다. 犒자는 여기에서 '추→유'로의 발음역할만을 하고 있다. 猶자는 본래 원숭이의 일종을 뜻하기 위해 만든 글자였다. 猶자에 아직도 '원숭이'라는 뜻이 남아 있는 것도 이 때문이다. 그러나 지금은 이와는 관계없이 '망설이다'나 '오히려'와 같은 뜻으로 쓰이고 있다. 어찌 보면 의심이 많은 원숭이의 특징이 반영된 글자라 생각된다.

갑골문	금문	소전	해서

3(2)  
-  
320

회의문자①



幽

그윽할  
유

幽자는 '그윽하다'나 '아득하다'라는 뜻을 가진 글자이다. 幽자는 㝱(작을 요)자와 火(불 화)자가 결합한 모습이다. 幽자의 갑골문을 보면 火자 위로 두 개의 㝱자가 㝱 그려져 있었다. 이것은 신탄래를 불에 그슬리는 모습을 표현한 것이다. 그래서 幽자의 본래 의미는 '검은 빛'이나 '그슬리다'였다. 실을 불에 그슬려 검은색이 은은하게 배도록 한다는 뜻이다. 이러한 뜻이 확대되어 지금의 幽자는 '그윽하다'나 '깊다'라는 뜻을 갖게 되었다.

갑골문	금문	소전	해서